

### Ⅲ. 主要 經濟 懸案

#### 1. 兩岸 緊張의 經濟的 波長

- (兩岸 緊張의 背景) 양안 긴장은 名分上은 「하나의 中國」을 표방하는 중국의 대만 독립 움직임에 대한 대외적인 경고용 힘 과시의 산물이지만 實質的으로는 내부결속, 아시아 지역내의 미국 주도권 견제, 대만경제의 교란과 위축을 통한 분리·독립의지 희석 등 다면성을 띠
- (周邊國의 利害關係) 양안 위기에 따른 주변국의 경제적 得失은 중국·대만과의 경제적 競爭關係 및 補完關係의 정도 여부에 달려 있음. 양당 사국에는 得보다는 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經濟的 波及效果) 단기적으로는 국제교역 감소, 민생교란, 투자억제 등 中華經濟圈에 시장교란을 가져오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무역질서와 국제금융시장에 악영향이 예상됨
- (示唆點) 한국은 양안 긴장으로 인한 경제적 득실관계상 利害中立的이지만 특히 대만당국의 經濟危機管理 능력을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하고 기업도 이를 계기로 機會要因과 威脅要因을 잘 분석 활용해야 할 것임

兩岸 緊張의 배경에는 지속적인 압력을 통해 대만을 경제적으로 교란·위축시키려는 중국의 저의

#### ○ 兩岸 緊張의 背景

- 중국과 대만의 긴장·대립 사태는 지난 3월 8일부터 兩岸에서의 중국의 미사일 발사훈련으로 표면화된 명분상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는 중국이 97년 홍콩과 99년 마카오의 귀속을 앞둔 시점에서 최근 대만에서 3월 총통 선거를 거치면서 불거진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움직임에 미리 쐈기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군사적 행동을 함으로써 비롯됨
- 더 나아가 중국의 의도는 다면적이나 궁극적으로 대만을 자국 영토로 자연스럽게 흡인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음. 對內的으로는 대만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통해 군부와 보수세력의 갈등을 포용하고 등소평 死後 일어날지도 모르는 혼란을 대외결속 명분하에 차단시키면서 對外的으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견제하는 한편 대만의 경제를 교

양안 긴장을 둘러싼 각국의 經濟的 得失은 競爭關係와 補完關係의 정도에 따라 좌우

란·위축시킴으로써 분리·독립의 움직임을 점차 희석시키려함

○ 各國의 經濟的 利害關係

- (臺灣) 양안 긴장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교역국인 중국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긴장 지속이 양국을 둘러싼 국제무역과 대만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 확실시됨
  - 중국시장은 대만 민간기업의 가장 중요한 투자선으로 대만의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240억 달러에 이르러 양국간 긴장이 본토에서의 활동을 저해하지 않을까 우려
  - 또한 대만은 수출입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지속은 대외교역에 큰 타격을 줄 것임
- (中國) 중국으로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자국이 「하나의 중국」을 지향한다는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展示效果를 노리고 있지만 양안 위기가 대만과의 경제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원치 않음
  - 이는 중국이 이 사건이 대만과의 교역 및 경제교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強辯하는 데서 알 수 있음
- (美國) 미국은 올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클린턴 행정부나 공화당 지배의 의회 모두 현상유지에 역점을 둘 것이지만 만일 자국의 이익에 거슬리는 사태의 진전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 強性基調로 반전할 가능성도 큼
  - 미국은 이번 5월로 예정된 중국에 대한 最惠國待遇(Most Favored Nation) 연장 문제를 정치적 흥정을 통한 경제적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 중국·대만 관련업체 등의 MFN 연장 압력도 드셀 것이 예상됨
- (周邊 아시아 國家) 양안 긴장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양국과의 경제교류관계의 정도에

양안 위기로 한국은 전자제품, 섬유, 컴퓨터 등 대만과의 경쟁산업 수출에서 반사이익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임. 우선 대만 수출산업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競合國家(Peer Group)들은 양안 위기로 일단 반사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나 대만과 직접 수출입 거래관계를 갖는 경우 교역위축이 불가피하므로 전체적 이해득실은 불분명

- 대만의 주요 수입선들이 대만으로부터 경쟁국들로 대체 선회 가능성
- 양안 긴장의 지속은 대만과 직접적인 교역관계에 있는 거래국 기업에 매우 부정적 영향. 한국의 경우는 대만에 대한 주요 수출품인 전자부품, 화학원자재, 철강 등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임

<표1> 兩岸 緊張이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득실관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수출	대만과의 경쟁관계 업종 수출 증가(섬유, 전자제품, 컴퓨터, 중공업)	대만에 대한 수출 감소(화학원자재, 유화, 전자부품, 철강)
해외투자	중국과 대만에 대한 외국투자가 대체투자 선으로 인접지인 한 국 선회 가능성(자본 유입효과)	한국의 대중국 투자 에 부정적 영향(신규 투자활동 억제, 사업 규제강화)
기타		물류비용 상승, 국내 해운업 타격

○ 經濟的 波及效果

- (短期的 波長) 양안 긴장의 단기적 영향은 일단 대만의 교역 감소, 민생 교란, 주식시장의 동요, 투자 억제 움직임 등으로 나타남
- 대만의 수출입 교역량 감소 및 대만해협의 이용도 저하.

短期的으로는  
中華經濟圈에  
교역감소, 민생  
교란 등 否定的  
영향

中 · 長期的으로  
는 세계무역질  
서와 국제금융  
시장에 악영향

- 중 · 대만간 긴장관계 고조는 직접 대만의 수출입 관련 교역량의 감소외에도 특히 동남아 항로를 이용하는 각국 해운업계에 큰 타격
- 위기의식의 팽배와 함께 심리적 불안감은 生必需品 사재기, 달러화 매입 등 민생 관련 경제질서의 일시적인 교란을 가져옴
- 달러화 매입은 일시적으로 이의 품귀현상을 초래했으나 대만 당국이 즉각적인 달러 매각으로 외환 시장의 동요를 진정
- 주식시장도 양안 위기가 시작되면서 하락세였으나 대만 당국의 證市安定資金 투입 등 민첩한 대응으로 안정되는 추세
- 양안 긴장과 함께 중국에 투자한 대만기업의 우려가 표면화되고 대만기업들이 대중국 투자억제 움직임 보이면서 중국에 無言의 압력으로 작용
- 국제금융시장은 양안 긴장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며 국제금리, 환율에는 별무영향
- (中 · 長期的 波及效果) 양안 긴장이 지속되고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대외거래 감소로 중국과 대만경제를 포함한 「中華經濟圈」에 치명타
- 사태의 장기화는 이미 중국에 투자한 기업의 퇴출을 가속화시키고 이곳에 진출코자 했던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며 脫中國 해외투자를 추구하게 함
- 대만에 대한 위기감의 팽배로 대외무역의 감소와 함께 대만의 국제신용도 저하가 불가피해지고 국내 자산의 해외 이탈이 점증할 것임
- 국제통상질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특히 중국이 아 · 태경제협력체(APEC)에 참여하는 관계로 지역경제협력의 활성화에 역행
- 중국이 보인 무력시위는 국제무역질서에서 WTO 체제로 대변되는 자유무역기조에 역행하는 冷戰時代의 「힘의 논리」의 재등장 가능성을 시사
- 양안 긴장이 미국이 직접 개입한 국제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경색을 가져오고 달러의

폭락과 금값의 앙등을 초래할 수 있음

韓國은 이번 사태를 앞으로의 經濟危機管理의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 評價 및 經濟的 示唆點

- 원래 중국의 의도가 대만에 대한 힘의 과시에 있는 만큼 양안 위기가 전면적 충돌로 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선거 결과 대만에 強性 분리지향적 정부가 들어설 경우 긴장 관계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중국의 무력시위가 대만에 대한 일시적 위협만으로 끝나고 곧 진정되는 경우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에 대한 명분상의 목적은 달성할지 모르나 경제적인 득실을 포함할 때 중국은 득보다는 失을 많이 보게 될 것임. 특히 양안 위기는 중국의 WTO 가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한국으로서는 이번 사태의 발발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兩面性을 갖고 있어 利害得失의 평가에 中立的이지만 궁극적으로 양안 긴장의 지속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임. 또한 위기 발생시 신속·적절하게 대처한 대만당국의 危機管理(Risk Management) 능력을 우리 정부는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임
- 한국기업으로서는 국제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機會要因과 威脅要因을 잘 분석, 기업경영에 적용함으로써 차후 국제분쟁에서 오는 不意의 기업 손실을 줄이는데 힘쓸 것임
  - 거래선 다변화를 통해 일정지역에 교역이 편중됨으로써 오는 위험 방지
  - 국제교역시 國家危險度(Country Risk) 등 다각적인 위협요인을 고려

(이 승 명)